

'25억원' 이대호 4년 연속 연봉킹...평균 연봉 1억1448만원

KBO 발표...평균 연봉 지난해비 4.1% 감소

1군 엔트리 기준 평균 연봉은 2억3729만원

2020년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억1448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군 엔트리 기준 평균 연봉은 2억3729만원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2020년 KBO리그 소속선수 등록 및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올 시즌 KBO리그에 등록된 선수단은 10개 구단의 감독 10명과 코치 260명, 선수 588명 등 총 858명이다. 지난해(844명) 대비 14명 늘어난 규모다.

투수가 294명으로 전체 포지션에서 50%를 차지했다. 내야수 139명(23.6%), 외야수 104명(17.7%), 포수 51명(8.7%) 순이다. 올해 KBO리그에 처음 등록된 신인은 46명이며 외국인 선수는 신규계약 15명, 재계약 15명 등 총 30명이 등록을 마쳤다.

코칭스태프를 포함해 전체 선수단 규모가 가장 큰 구단은 93명인 한화였다. 뒤이어 롯데 92명, LG 90명, SK와 KT 89명, KIA 88명, 삼성 85명, 두산 84명, NC 75명, 마지막으로 키움 73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KBO리그에 등록된 10개 구단 선수(신인, 외국인선수 제외)들의 전체 연봉 규모는 79억7400만원으로 2019년 75억47800만원에 비해 15억400만원이 감소했다.

◇신인·외국인 제외 평균 연봉 1억1448만원...전년대비 4.1% 감소

소

신인과 외국인선수를 제외한 소속선수 512명의 평균 연봉은 1억4448만원으로 2019년 1억5065만원에서 4.1% 감소했다. 2018년 리그 최초로 1억5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단 별 평균 연봉은 NC가 1억6581만원으로 가장 높고, LG의 평균연봉은 전년대비 2662만원(19.7%) 증가한 1억6148만원으로 전 구단 중 최고 인상액과 인상률을 기록했다.

◇1군 기준 평균 연봉 2억3729만원...전년대비 5.6% 감소

KBO리그 엔트리 등록 기준(신인·외국인 선수 제외)인 구단 별 상위 28명의 합산 평균 연봉은 2억3729만원으로 지난해 2억5142만원에 비해 1413만원(5.6%)이 줄었다.

2014년 이후 5년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키움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2억2525만원으로 전년대비 3173만원(16.4%) 인상됐다. 10개 구단 중 최고 인상액과 인상률이다.

◇역대 연봉 161명, 전체 31.4%

올해 KBO리그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선수는 161명으로



이대호

지난해 156명에서 5명 증가했다. 역대 연봉 선수는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12명 중 31.4%를 차지한다.

역대로 역대 연봉 선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164명이었다. 2017년 163명에 이어 올해가 3번째로 많은 역대연봉자 숫자다.

◇이대호, 4년 연속 KBO리그 최고 연봉...양현종 2위

선수 개인 연봉을 살펴보면 롯데 이대호가 2017년 FA 계약 체결 이후 연봉 25억원으로 4년 연속 KBO리그 최고 연봉 선수로 등극했다. 올해로 20년차인 이대호는 2014년 삼성 이승엽의 20년 차 최고 연봉(8억원) 기록 또한 큰 차이로 경신했다.

리그 전체 2위이자 투수 부문 최고 연봉 선수는 KIA 양현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3억원에 계약을 마쳤다. 양현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투수 부문 1위로 역대 투수 최고 연봉 기록도 유지했다.

더불어 지난해 FA 계약을 통해 14년차 최고 연봉 신기록을 달성했던 NC 양의지의 20억원도 경신했다. 양의지는 한화 김태균, 키움 박병호(15억원)가 가지고 있던 15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깬다.

이대호, 양현종, 양의지 외에 키움 박병호 20억원, SK 이재원 13억원, LG 김현수 13억원, 삼성 강민호 12억5000만원, KT 황재균 12억원, 한화 정우람 8억원, 두산 김재환과 김재호가 각각 6억 5,000만원으로 각 구단의 최고 연봉 선수로 등록됐다.

◇2019년 구원왕 하재훈, 역대 최고 인상률 455.6%

SK 하재훈은 2019년 2700만원에서 455.6%가 뛰어오른 1억5000만원에 계약해 역대 최고 인상률 신기록을 작성했다. 종전 최고 인상률이었다던 2007년 한화 류현진의 400%(2000만원→1억원)의 기록을 13년만에 갈아치웠다. 데뷔 첫 해 36세이브로 역대



박용택

KBO리그 데뷔 시즌 최다 세이브 신기록을 달성한 하재훈은 슈퍼루키 KT 강백호가 지난해 기록한 2년차 최고 연봉 1억2000만원도 넘어섰다.

◇김하성·이정후 2년 연속 해당 연차 최고 연봉 신기록

소속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도 핵심 멤버로 자리 잡은 KBO리그의 '젊은 피' 키움 김하성과 이정후는 각각 7년차와 4년차 최고 연봉 신기록을 세웠다.

김하성은 올 시즌 5억5000만원(2019년 3억2000만원)에 최종 사인해, 2012년 한화 류현진과 2018년 NC 나성범의 4억3000만원을 기꺼히 뛰어넘었다. 이정후 역시 3억9000만원(2019년 2억3000만원)에 도장을 찍어 4년차 최고 연봉인 2009년 류현진의 2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최고령 박용택, 최연소 이강준...22년 차이

2020 KBO리그의 최고령 선수는 LG 박용택이다. 1월31일 등록 기준 나이가 만 40세9개월10일로 집계됐다. 최연소 선수는 KT 신인 투수 이강준으로, 박용택과는 무려 22년 이상 차이가 나는 만 18세1개월17일이다.

리그 전체 평균 연차는 8.5년에서 8.4년으로 0.1년 줄었으며, 외국인 선수의 평균 연령은 30.1세로 지난해 30.6세 보다 0.5세 어려졌다. 평균 연령 27.3세, 평균 신장 183cm, 평균 체중 87.5kg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최장신 선수는 NC의 신규 외국인 투수 마이크 라이트와 한화 신인 투수 신지후가 198cm로 등록됐고, 최단신 선수는 삼성 신인 내야수 김지찬이 163cm로 2017년 등록했던 삼성 김성윤과 함께 역대 최단신 선수로 기록됐다.

소속선수 등록을 마친 2020 KBO리그는 3월14일부터 열리는 시범경기를 통해 야구팬들과 먼저 만난다. 본격적인 승부는 3월 28일 토요일로 정규시즌 720경기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LPGA 통산 20승 달성한 박인비...‘2회 연속 올림픽 금 노린다’

2018년 US여자오픈 이후 ‘13년만의 20승 달성’...“올림픽 가려면 계속 잘해야”



박인비는 지난 16일(한국시간)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턴의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파73·6633야드)에서 막을 내린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30만달러)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 278타를 기록,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지난 2018년 3월 뱅크 오브호프 파운더스컵 이후 약 2년만에 우승을 추가, 박세리에 이어 한국 선수 2번째로 LPGA투어 통

산 20승 고지에 올랐다. 오랜 만에 우승을 차지한 것에 대해 박인비는 “우승이 그리웠다. 다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116년만에 부활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연속 2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 있는 박인비는 “이번 우승으로 한국 대표팀에 들어가기에 부족할 수 있다. 계속 뛰어난 활약을 펼쳐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동 2위’ 강성훈 “전반 실수 아쉬워...장갑 바꾼 뒤 나아졌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달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성훈(33·CJ대한통운)이 전반홀에서 나온 티샷 실수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성훈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리베라 컨트리클럽(파71·7322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를 적어냈다. 함께 9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강성훈은 선두 애덤 스콧(호주, 11언더파 273타)에 2타 뒤진 공동 2위에 랭크됐다.

강성훈은 이날 전반 초반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1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한 그는 2번홀(파4)에서 러프에 빠진 공을 찾지 못해 1벌타를 받는 등 더블보기로 흔들렸다.

이어 4-5번홀에서도 연속 보기를 적어내며 주춤했다. 잇따라 파퍼트를 놓쳐 타수를 잃었다.

강성훈은 경기 후 “첫 홀 이글로 출발이 좋았는데, 이후 전반에 티

샷 실수가 너무 많아 2오버파까지 간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그래도 정신을 차려 전반을 마치고 후반에 넘어간 뒤, 11번홀과 17번홀에서 페어웨이를 잘 지켜 버디를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어려운 홀들을 파로 세이브해 경기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성훈은 전반 잇따른 더블보기와 보기 이후 장갑을 교체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반 이글, 더블보기, 보기 2개로 2타를 잃은 뒤 6번홀(파3)에



서 절묘한 티샷에 이어 3m짜리 버디 퍼트를 잡아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강성훈은 “어제보다 전반 9홀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다”며 “처음에 장갑 느낌이 이상하고, 잘 안 맞아서 중간에 보기를 하고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멀티골 맹활약 손흥민에 아시아도 들쭉...日·中 매체들도 ‘엄지 척’

“아시아 선수 사상 첫 EPL 50득점...토티넘의 영웅”

아스톤빌라전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인 통산 50, 51호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손흥민을 향해 일본과 중국 언론의 부러움 섞인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은 16일 오후(이하 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19-20시즌 EPL 26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작렬, 팀의 3-2 역전승을 이끌었다.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이 이어진 가운데 손흥민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손흥민은 1-1로 맞선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 기회에서 키커로 나섰다. 첫 슈팅은 상대 파페 레이 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뒤편 공을 놓치지 않고 밀어 넣었다. 2-2로 팽팽하던 경기 종료 직전에는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드리블 돌파 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짜릿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골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EPL에서 처음으로 50, 51호골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아울러 자신의 프로 데뷔 후 첫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등 갖가지 기록을 새로 썼다.

이에 현지 언론은 물론 일본과 중국 언론도 손흥민의 맹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일본 ‘게기샤카’는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달성했다”며



“지난 2015년부터 토티넘에서 뛰 손흥민이 EPL 통산 51골을 기록했다. 이는 아시아 선수 최초 ‘타고 나도 했다.’

일본 ‘풋볼 채널’ 역시 “손흥민이 94분째 증언선 부근에서 단독 드리블 돌파 후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중국 ‘시나스포츠’ 역시 이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세비야전에서 골을 터트린 우레이(에스파뇰)와 함께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또다시 경기를 지배했다. 손흥민이 결승골로 조제 모리뉴 감독을 구했다”며 “우레이가 이날 라리가에서 골을 터뜨렸는데, EPL에선 손흥민이 아시아를 전 세계에 알렸다. 멀티골을 기록하며 토티넘의 영웅이 됐다”고 밝혔다.